

달라이 라마와 함께한 '이타주의 경제' 대화마당

경제는 인간을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

마음과생명연구소 주최, 9~11일 스위스 취리히 의사당

유럽의 금융, 문화 그리고 과학의 교점에 위치한 스위스 취리히에서 현 세계경제체제의 난관을 극복키 위한 대화의 자리가 마련됐다. 마음과생명연구소(Mind&Life Institute, 미국)는 '이타주의와 관용의 경제학'을 주제로 4월 9~11일 3일간 취리히 의사당(Kongresshaus)에서 포럼을 열었다.

티베트 불교의 영적 지도자 달라이라마를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타니아 싱거(Tania Singer) 스위스 취리히대학 교수, 리처드 데이비슨(Richard Davidson) 미국 위스콘신대 교수, 매튜 리차드(Matthieu Ricard) 네팔 세첸수도원 원장 등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경제학·심리학·인류학·신경과학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했으며, 불교적 관점에 기반을 둔 이타주의와 관용의 경제시스템이 심도 깊게 논의됐다.

이번 행사에는 1960년 이후 스위스에 정착한 티베트 난민과 스웨덴·프랑스·오스트리아·벨기에·이탈리아에서 온 티베트인 4천여 명이 함께 했다.

달라이 라마는 전문가들과의 대화에서 "서구 중심의 경제학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랑과 존중의 협력 관계를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새로운 경제시스템의 바탕으로 '이타주의'를 강조했다. 다음은 달라이 라마의 발언 요지.

#왜, 이제야 이타주의 경제학인가

우리가 직면한 글로벌 금융 위기는 인간 내면의 평정심이 불균형 상태임을 의미하는 표상이다. 이 자리에 모인 목적 또한 한 나라의 경제 위기가 그 나라민의 문제가 아님을 알기 때문이며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고민해보기 위해서다.

사실 나달라이 라마는 경제학에 무지하다. 그러나 방향은 제시할 수 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은 공통적으로 진실하고 선한 목표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매튜(Matthieu Ricard, shechen monastery)의 부언처럼, 개개인이 행하는 동정, 공감, 관용은 사회 공동의 이익을 증장시키는 촉매제이다. 또한 밖으로 드러나는 친사회적 연민은 타인이 지닌 욕망의 고통을 경감시켜준다.

불교는 불자를 위한 신앙생활을 제안한다. 불교경제학의 근본인 자비의 이타주의가 오늘날의 난관을 극복할 절대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모든 종교는 인류가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지 불교의 기술적인 부분과 몇 가지 지식이 이 시대에 적절히 활용되고, 오늘날의 난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욕망에서 서원으로 전환되는 경제학

현대 경제학은 소비가 경제활동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정의해 왔다. 그러나 대량 생산과 편향된 이윤 추구에 의한 성장은 결국 거품경제를 초래했다. 대량 실직은 증가하고, 빈부의 격차는 더욱 커졌으며, 가족은 붕괴됐다. 인간의 부정부패와 탐욕에 의한 결과이다.



4월 9~11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이타주의와 관용의 경제학' 포럼에서 여러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누는 달라이 라마.

그러나 이 또한 과장이다. 기존 서구 중심의 경제학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졌고, 비로소 인간을 둘러싼 모든 현상은 연기적인 관계에 의해 상호의존하고 있음을 깨우치게 됐다.

지금쯤 살아가는 경영 리더들은 긍정적인 공유로 그 뜻을 함께 해 가고자 한다. 비대해지고 있는 중국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다. 창조와 변화의 경제 중심에 인권이 핵심으로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무엇이 승자인가? 비로소 오늘날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인간에의 회복임을 되돌아보게 됐다. 나는 그것을 바르게 정의내리기 위해 스위스 취리히에 왔다고 생각한다. 물질적 성장만을 유일한 목표로 삼고 그 위에 올라선 이들이 잠시 잊고 있던 부분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다. 지금이야말로 물질적 영역에서 인간의 욕망은 절대 충족될 수 없음을 깨우칠 시점이다. 앞만 보고 달리는 인간의 갈망은, 이제야 돌이켜 본다. "무엇을 바라는 것이 옳은가?" 다시 시작이다.

#이타적 협력, 멀리 놓이 나는 출발점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말했다. "끝날 때까지 모든 것은 항상 불가능해 보인다."

우리는 현대의 경제 상황에 대해 스스로 '이유'를 물어야 한다. 행복은 G20(Group 20) 세계경제협의기구에서 결코 찾을 수 없다. 타인이 당신에게 협력을 요구하기 이전에 당신 먼저 "나는 행복을 원한다. 그리고 당신이 필요하다"라고 먼저 손을 뻗어야 한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랑과 존중의 협력 관계만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스위스 금융에 종사하는 아서(Arthur Vayloyan)는 연민과 이타의 경제시스템 가운데 소액금융(Micro Finance)이 세상의 빈곤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 모델임을 확인시켰다. '맨발의 대학(barefoot

college)' 창립자 산지트(Sanjit)는 간디의 정신을 실천하는 사회 활동가이다. 불교의 자급자족 이념을 심본 활용, 가난한 사람에 의해 지어낸 마을에서 여성에 의해 운영되는 공동 체제를 확립했다. 뿐만 아니라 인도 600여 개 마을에서 태양 전기 사용을 현실화 했다.

오는 9월 나는 산지트와 함께 '맨발의 대학'에 방문할 것이다. 항상 고민해온 숙제 가운데 하나가 '티베트 망명정부의 난민들이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바르게 현대화 교육으로 입문해야 하는가'였다. 실마리를 그곳에서 찾을 것으로 확신한다.

#경쟁에서 협력으로

여기서 우리는 다시 묻는다. "당신에게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두뇌는 '경제적 안정과 진보가 시간과 비용의 이익에 비해 한다'고 고정관념화 되어있다. 인간의 욕망은 죽는 순간까지 만족을 모른다. 돈과 행복을 동일시 해온 이유다. 행복의 척도는 소비의 양이 아니다. 실제로 미래는 불확실하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대화의 결핍에 기인한다. 현재의 위기는 기본적인 도덕 윤리와 원칙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행히 희망으로 오늘을 살아간다.

행복은 인류 공통의 보편적인 가치이다. 의견의 일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다른 의견이 존재하는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 경제학은 보편적인 부의 증대라는 슬로건으로 출발했으나, 불황과 실업의 불경기를 초래했다.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 1818~1883)는 "생활이 가난하면 마음도 가난하다. 경제는 인생을 이끌어 준다"고 말했다. 나는 그의 주장에 적극 공감한다. 시장경제의 본질은 생산자와 경영인 그리고 소비자의 탄력 있는 협력에 있다. 경제는 인간을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의 또 다른 이름이다.

스위스 취리히 = 기연숙 객원기자 omflower@gmail.com

왜 사람들은 그에게 열광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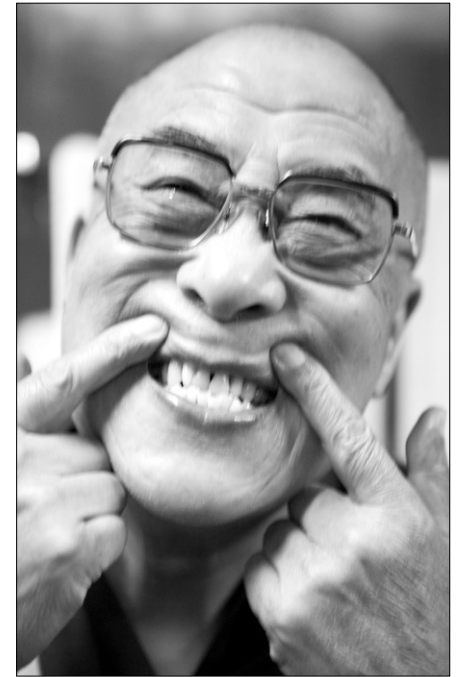
비탈리 만스키 연출, '선라이즈' 5월 13일 개봉

평화의 절대적인 수호자라 불리며 전 세계인에게 존경과 탄생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달라이 라마 14세. 달라이 라마의 하루 24시간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세상에 공개된다.

러시아 출신 비탈리 만스키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선라이즈 선셋'이 5월 13일 개봉을 앞두고 있다.

'왜 사람들은 달라이 라마를 주목하고 열광할까?'라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출발한 영화는, 달라이 라마의 업적, 종교인으로서의 그의 생활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달라이 라마 곁에 머무르며 한 인간의 담담한 일상모습을 그려냈다.

영화에서 달라이 라마 14세의 모습은 소탈하고 인간적이며, 진솔하다. 영화는 특별한 설정이나 주입식 메시지를 따로 보여주지 않는다. 단지 달라이 라마 14세의 곁에서 조용히 그의 하루를 따라다니다 너무 부담 없이 일상적 대화를 나누고,



소탈하고 인간적이며 진솔하다

여러 가지 화두를 던지며 그 안에 담겨진 메시지와 진정성을 관객 스스로 자연스럽게 느끼게 연출했다.

2부로 나뉘어 전개되는 '선라이즈 선셋'은 새벽 3시에 기상해 런닝 머신으로 체력을 단련하는 달라이 라마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기도하고 명상하는 달라이 라마의 모습, 법회를 하는 장면 등은 또 다른 특별함을 선사한다.

또한 제작팀이 달라이 라마와 헤어진 후 러시아로 돌아가는 동안, 그의 메시지를 깨닫는 과정 등은 영화에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 달라이 라마 14세가 전하는 전 세계 인구 과밀과 빈부격차, 세계적인 분쟁 등을 주제로 나눈 대화 속에 오고갔던 많은 말들이 잘나에 큰 울림을 전하고 있다.



달라이 라마는 새벽 3시에 일어나 땀뻘기울인다.

"우리 마음에는 연민이라는 기본성질이 있어. 불교에선 그걸 인간의 훌륭한 특성 중 하나로 치지. 이런 걸 고양시켜야 돼. 새깃만 찾지 말고. 우린 일종의 씨앗을 품고 태어나네... 불교적 관점에서는, 온정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해. 온정을 바탕으로 믿음을 가지면 좋아. 믿음은 굳이 없어도 괜찮아. 허나 온정과 분별력은 마땅히 갖춰야 돼. 그럼 괜찮아."

300편 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칸국제영화제, 베를린국제영화제 등 30번 이상의 수상경력을 자랑하는 비탈리 만스키 감독은 "선라이즈 선셋"을 준비하면서 전 작품들과 다르게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촬영 소감을 밝혔다.

이미 로테르담국제영화제, 모스크바국제영화제 등 10여 개 영화제의 공식 경쟁 부문에 출품돼 주목을 받고 있는 영화 '선라이즈 선셋'이 과연 어떠한 감동으로 관객들에게 보여 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은정 기자

조계종출판사 TEL 02.733.6390 FAX 02.720.6019

불기 2554년 부처님오신날 기념 독후감 대회

《부처님의 생애》 읽고 성지순례 떠나자!

응모요강

- 기간** 2010년 3월 30일~5월 2일까지(마감당일 소인 유효)
- 대상** 누구나 가능
- 요령** 『부처님의 생애』를 읽고 독후감 제출, 분량은 원고지 15매 이상 30매 이하
- 보낼 곳** e-mail: inyeon@buddhism.or.kr
우편접수 (우)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3번지 대한불교조계종 전법회관 7층 조계종출판사
- 발표** 2010년 5월 10일
조계종출판사 홈페이지 및 불교신문·법보신문 발표(시상식은 추후 공지)
- 부문** 대상 1명 인도 불교성지순례 상품권
최우수상 1명 중국 불교성지순례 상품권
우수상 5명 템플스테이 상품권(1인 2매 국내) 20만원 상당
가작 10명 조계종출판사 도서 10만원 상당
단체상 조계종출판사 도서 100만원 상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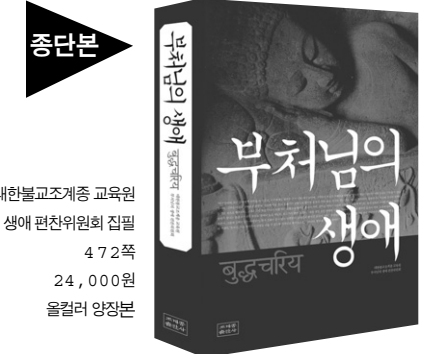
독후감,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 이메일 접수 시 제목란에 이름을 밝혀 주십시오(예: 부처님의 생애 독후감 응모-홍길동). 기금적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원고를 작성해주세요. • 응모 시 소속을 밝혀 주세요(예: 사찰 및 학교). • 원고에는 이름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반드시 적어주세요. • 응모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우편 접수는 등기로 발송해주시고,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봉투 겉에는 『부처님의 생애』 독후감 응모 라고 써 주십시오. 마감일 우편 소인까지 유효합니다.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교무원 주관 조계종출판사 후원 불교신문·법보신문·불교방송·불교TV·중앙승가대학교·(사)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조계종출판사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에게 의지하라”

...크게는 부처님의 발자취를 집대성하고 작게는 글자 한 자 한 자까지 세심하게 살피며 인간적이면서 초인간적인 부처님의 모습을 담은 『부처님의 생애』는 부처님의 삶을 바르게 전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중단본
대한불교조계종 교무원
부처님의 생애 편찬위원회 집필
472쪽
24,000원
울림터 양장본

2010년 내 삶의 든든한 버팀목 부처님의 생애